

해남 출신 태권도 마이스터 정선채 관장



한국전지훈련에 나선 정선채 관장(왼쪽)과 아들 찬성 사범이 지난 19일 곡성군 옥과면 전남과학대 체육관에서 빈센트 호우벤 교수(오른쪽)에게 발차기를 지도하고 있다.

독일에 태권도魂 심는다

“태권도의 태(跆拳道)는 발동작, 권(拳)은 손동작을, 도(道)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스포츠맨십을 의미합니다. 손발을 놀리는 것도 도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독일 수련생들에게 제일 기본적인, 중요한 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곡성군 옥과면 전남과학대 체육관. 독일 베를린에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수련생들과 함께 전지훈련차 최근 고국을 찾은 해남출신 정선채(63·7단) 관장과 아들 찬성(25·4단) 사범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독일 수련생들은 10대부터 50대까지 8명. 직업도 교수와 조각가, 학생 등 다채로웠다. 독일 수련생들은 전남과학대 태권도학과 학생들과 호흡을 맞춰 하루 6시간씩 1:1 대련 등 태권도 기량연마에 한창이었다.

독일 수련생들은 정 관장을 ‘마이스터(Meister) 정’이라고 부른다. 마이스터는 특정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거장(巨匠), 명인(名人)을 뜻하는 말로, 독일 수련생들이 평생 자신을 연마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정관장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다. 정 관장은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6차례 독일 수련생들과 전담을 찾아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가 고향인 정 관장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큰형 덕분에 일찌감치 태권도를 익혔고, 1군 하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한 후 단기하사로 3년간 복무하면서 태권도 교관을 지냈다. 제대 후 미래를 고민하던 정 관장은 1974년 겨

베를린 수련생 8명과 전지훈련

전남과학대 학생들과 1:1 대련

인성교육·심신단련 매력 느껴

올 과목(派屬) 광부로 독일 땅을 밟았다.

당시 서독 서쪽지방에 위치한 아헨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한편 쉬는 날에는 한인 행사장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곤 했다.

18개월 가량 광부일을 했을 때 스페인에서 사범으로 와달라는 초청장이 왔다. 이를 기회로 삼아 정 관장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5년간 마드리드 등 가라테 도장에서 활동하며 태권도를 보급했다.

정 관장은 “당시 스페인 사람들은 태권도를 ‘코리안 가라테’라고 불렀다. 가라테를 배우던 스페인 수련생들이 태권도 사범과 겨루고 싶어해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대결해 이겼다”고 회고했다.

1981년께 정 관장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다시 독일 뉴텐사이드로 옮겼다. 잠시 지인의 태권도장에서 사범으로 활동하다 이듬해 베를린에 태권도장 ‘정(CHUNG)’을 개관했다. 초창기는 도장을 찾는 이들이 없어 썰렁하기만 했다. 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도장 수련생은 유년반에서 청소년반, 성인반까지 300여명에 달한다. 성인반에는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등이 일과후 도장을 찾아 수련하고 있다.

비결이라면 독일인들이 단순히 태권도 동작만을 가르치지 않고 인성교육 등 정

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정 관장의 가르침에 매력을 느낀 것이다. 수련생들은 대부분 생활체육 일환으로 도장을 찾아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 성인반 빈센트 호우벤(57) 교수는 딸 파우리네(18)와 함께 참가했다. 초록머(6급)인 호우벤 홀름트대학 동남아시아 역사사회학과 교수는 “아들 권유로 4년째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낮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반대로 도장에서 배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도 더 생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 정신력과 집중력이 강해진다. 잠도 푹 잘 수 있다”며 활짝 웃었다.

도스만 올리케(43·조각가)씨는 “한국 친구를 사귀며 태권도와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됐다. 예전에는 테니스를 했는데 태권도가 더 건강에 좋다”고 밝혔다.

아들 정찬성 사범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독일에 태권도 혼(魂)을 심고 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한편 아버지 도장에서 보조 사범으로 활동하고 베를린 소재 존F 케네디 스포츠·영국 사립학교 등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정 관장은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를 잘 알려주는 것은 스포츠”라면서 “과거 차별만 뿐만 아니라 요즘 분데스리가 구장, 지하철, 손흥민의 활약상에 기반이 좋아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관장과 독일 수련생들은 26일 전지훈련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 3일간 머물며 관문점 등지를 둘러보고 귀국할 예정이다. /글·사진=송기창기자 song@

관세청, 전재국 ‘자금 해외도피’ 정황 포착

시공사 통해 무역거래 가장...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

관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말부터 최근까지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며 공개한 182명을 상대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결과, 재국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공사 등을 통해 정상 무역거래를 가장하고 자금을 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18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신원파악을 끝낸 상태로, 재국 씨를 포함한 재벌과 기업인 6명이 외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포착하고 주장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재국 씨가 외국으로 빼돌린 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있는지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전씨는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에 ‘블루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확보를 위해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을 압류한 데 대해 전씨 측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씨 내외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23일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을 방문, 이씨로부터 개인연금 보험에 낸 납입 원금의 출처에 관한 ‘해명자료’를 건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전두환 외동딸’은 대학 조교수

효선씨 연희동 고급빌라 거주 ‘재력가’... 비자금 ‘할 말 없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51)씨가 서울의 한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와 차남 재용씨에 비해 외동딸 효선씨의 행적은 그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효선씨는 현재 부친의 사저와 1km가량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효선씨는 연희동 빌라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토지 등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효선씨의 집은 지난 16일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재산 형성 과정이 부친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인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21일 밤 연희동 빌라를 방문했으나 효선씨는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가득사 때문에 학생들이 수강을 꺼리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전씨 일가의 비자금에 다시 논란이 되면서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업 거부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효선씨는 현재 부친의 사저와 1km가량 떨어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효선씨는 연희동 빌라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토지 등을 소유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다. 효선씨의 집은 지난 16일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는 이 같은 재산 형성 과정이 부친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인지를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21일 밤 연희동 빌라를 방문했으나 효선씨는 “아무 할 말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재정·연구개발·금융 ‘전남 3대 취약요인’

전발연 조사... 전국 최저 수준

전남 발전의 가로막는 3대 장애물로 취약한 지방재정력, 연구개발(R&D), 금융기반 등이 손꼽혔다.

전남발전연구원(원장 이진철)은 23일 ‘전남의 3대 취약요인’ 특집 자료를 통해 “전남 지역은 지방재정력과 R&D, 금융기반이 열약해 이를 확충하지 않으면 지역발전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의 지방세 수입은 7000억원 남짓으로 제주, 강원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또한 1.1%로 전국 최하위며 도(道) 평균 2.1%보다 1%포인트 낮다. 일반회계의 근간이 되는 보통세의 GRDP 대비 비중은 0.9%에 불과해

경기도(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R&D 실적도 취약해 연구개발비는 5328억원(2011년 기준)으로 총남의 6분의 1, 경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 관련 기반과 실적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대출의 경우 수도권 비중은 2001년 64.7%에서 지난해 68.3%로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2001년 2.5%에서 지난해 1.4%로 급감했다.

예금 역시 2001년 1.4%에서 2012년 1.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진철 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전남의 지방재정력, 연구개발, 금융 등 3대 취약분야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운동’ 왜곡 대응 전국시민연대기구 출범

관련법 제정·교육 등 역사바로알리기 추진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시민사회 연대기구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전국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 역사왜곡저지국민행동’은 이날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발족식을 열고 5·18 왜곡세력에 대한 전국적 고소고발과 5·18 바로 알리기를 위한 관련법 제정, 교육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5·18 왜곡 및 폄하하는 역사 왜곡 쿠데타이며 5공 세력의 부활을 노린 반역사적 음모”라며 “국론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왜곡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고소·고발 운동은 물론, 온라인 및 강연회, 전시회, 시사회 등을 통해 5·18 역사 바로 알리기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5·18 왜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입법청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민행동은 이와 더불어 올바른 과거 청산을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금리는 은행만큼!

담보대출 - 한도 25억원

- * 상가대출
- * 아파트대출
- * 원·투룸, 나대지 대출
- * 임대 전세보증금 대출
- * 차량대출
- * 기타대출

신용 / 정책자금대출

- *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햇살론 - 2,000만원 한도
- * 자영업자 신용대출·일일상환 대출
- * 직장인 햇살론 - 1,000만원 한도
- * 직장인 신용대출·마이뉴스 대출

낮은금리로 원하는 대출을 필요하신 만큼! 친절하고 상담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 본점 | 공동 예술의거리 010-3603-7981
- | 금호지점 | 금호지구대 옆 010-4948-2882
- | 풍암지점 | 신암초등학교 앞 010-3642-6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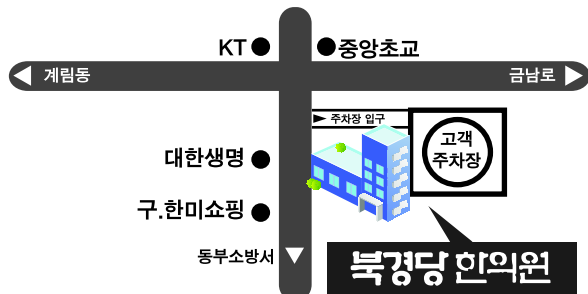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제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일 : 오전9시~오전7시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30-광-26호

자연산 참돔을 직접달여 만든 14년 전통

참돔 보양식전문점

삼계탕 전문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착한 가격”

- 참돔** 토종 참돔탕 / 돔 청동오리 / 돔 삼계탕
- 한방** 한방 백숙 / 한방 청동오리 / 춘달백숙 삼계탕

토종참돔탕 (오분, 식사술 포함) **40,000원**
춘달백숙 **38,000원**

윷의 효능
위염, 위궤양 효과 / 과음 및 숙취해소 / 장부실 개선 및 어혈 제거/항암작용, 암세포 성장 억제 / 원기회복 속이 냉하거나 손발이 찬데

함양윷닭 062)515-5757(윷칠윷칠)

광주광역시 북구 윷동 9-3 해피부병원 뒤(구, 삼성병원), 수창초교 후문 건너편

